

KCY PARTNERS

PROLOGUE EDITION · 프롤로그 공개 판

국세청 세금 컨설팅 방법

세무조사는 통지서를 받은 뒤가 아니라 그 전에 갑니다.

기업 자문과 인수합병 현장에서 25년간 지켜본 것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KC YOON

윤강찬 · KangChan Yoon

PUBLISHED BY
KCY PARTNERS LLC

PROLOGUE

왜 이 책을 만들었는가

스물다섯 해 동안 기업을 상대해 왔습니다. 무역으로 시작해 기업 인수합병과 투자 자문으로 넘어오면서, 수많은 회사가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는지를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재무제표를 넘기고, 자금의 흐름을 따라가고, 그 숫자 뒤에 있는 사람의 사정까지 듣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보게 됐습니다. *사업은 잘 되는데 세금 앞에서 무너지는 회사들*입니다. 매출이 늘어난 만큼 위험도 같이 늘어난다는 것을 모른 채 몇 해를 보내다가, 어느 날 우편함에서 통지서 한 장을 꺼내 듭니다. 그때부터 급하게 자료를 모으고 사람을 찾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승부는 통지서를 받기 전에 갑니다.**

차이는 실력이 아니라 정보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순서*입니다. 국세청이 무엇을 보는지 알고 몇 해를 지내온 사람과, 모르고 지내온 사람의 차이입니다. 앞의 사람에게 통지서는 절차이고, 뒤의 사람에게는 사고입니다.

문제는 그 기준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법은 누구나 찾아볼 수 있지만, *국세청이 어떤 기준으로 조사 대상을 고르는지*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영자는 자기 회사가 어디쯤 서 있는지 모른 채 사업을 합니다.

저는 세법을 해설하려고 이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세무 전문가들의 몫입니다. 제가 쓸 수 있는 것은 다른 자리에서 본 것입니다 — 기업을 자문하는 자리, 회사를 사고파는 자리, 자산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숫자로 들여다보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보면 세금은 세법의 문제가 아니라 *경영의 문제*로 보입니다.

이 책은 그 관점에서 썼습니다. 무엇을, 언제,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는가. 국세청 조사국에서 오래 일한 전문가들과 함께 그 판단 기준을 정리했고, 같은 기준을 시로 옮겨 *2분 만에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도구*도 만들었습니다.

이 책이 세무조사를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통지서를 받았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그리고 *통지서를 받기 전에 무엇을 해두었어야 하는지*를 알게 해줄 것입니다.

한국의 많은 기업과 자산가들에게 이 기록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KC YOON

윤강찬 · KangChan Yoon · KCY PARTNERS 대표이사

ABOUT THE AUTHOR

지은이



KC YOON

윤강찬 · KangChan Yoon

KCY PARTNERS LLC 대표이사

무역 · 에너지 · M&A · AI

유튜브 '세무조사는 편편택스'

1999년 서울에서 무역회사를 세우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이 보편화되기 전이라 직접 세계 각국을 다니며 파트너를 찾았고, 중국·이탈리아·스페인·독일·인도를 거점으로 수입과 제3국 간 무역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KCY PARTNERS 대표이사로 무역·에너지·기업 인수합병과 투자·AI 개발을 맡고 있습니다. 9개국 13개 도시의 파트너와 함께 일하며, 국내 대기업에 무역 컨설팅을 제공해 왔습니다.

세무 분야에서는 국세청 조사국 출신 전문가들과 함께 *세무조사 대비·세금 대비 AI*를 직접 개발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국세청 판정 기준을 실제 조사 사례에서 역으로 복원해 규칙으로 세운 작업이었고, 그 과정에서 정리한 판단 기준이 이 책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CONTENTS

이 책이 다루는 것

01 국세청은 무엇을 보는가

조사 대상은 무작위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신고 소득과 실제 지출·자산 증가를 대조하는 방식(PCI)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부터 시작합니다.

02 통지서가 오기 전에 끝나야 하는 것들

준비의 대부분은 통지 전에 끝나 있어야 합니다. 시점별로 무엇을 해두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03 현금 매출과 비용 계정

업종별로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는지, 어떤 계정이 먼저 눈에 띄는지를 다룹니다.

04 자금출처 — 자산이 늘어났을 때

부동산을 취득한 뒤 따라오는 질문과, 증여세가 어디에서 갈리는지를 봅니다.

05 통지서를 받았다면

순서가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06 스스로 점검하는 법

같은 판단 기준을 AI로 옮긴 자가진단 도구의 사용법과 한계를 설명합니다.

이 파일은 **프로로그 공개판**입니다. 본문은 준비 중이며, 완성되는 대로 같은 자리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금은 세법의 문제가 아니라 경영의 문제입니다.

KCY PARTNERS는 무역, 에너지, 기업 인수합병(M&A) 및 투자, AI 개발 분야의
글로벌 기업투자 전문회사입니다. 9개국 13개 도시의 파트너와 함께 기업의 다음
단계를 설계합니다.

TELEPHONE

+82-2-867-0035

E-MAIL

kcypartners@gmail.com

WEB

kcypartners.com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C동 1105-14호 (문정동)

1105-14, C-dong, 128 Beopwon-ro, Songpa-gu, Seoul, Republic of Korea

KCY PARTNERS